

연쇄살인·강력범죄 공포... 불안한 주민들

위치추적서비스 가입 급증  
한밤 귀가 여성 가족 마중

강호순의 연쇄살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광주·전남에서도 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서비스에 가입한 학부모가 귀가 시간을 넘긴 자녀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귀가 시간이 빨라지고 밤늦게 학원 수업이 끝나는 학생들을 직접 এস코트하러는 부모들도 늘어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공포가 지역민들의 생활상을 바꿀고 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서비스 가입 2배=6일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부터 이 달 5일까지 6일간 위치추적서비스 가입건수는 515건에 달한다.

이날 하루 평균 103명이 위치추적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강호순이 7명의 자녀를 살해했다고 자백하기 직전 1주일(1월24~30일)의 하루 평균 가입건수(56.8건)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들 고객들은 자녀나 여성의 현재 위치를 휴대전화를 통해 알려주는 '자위위치 알림'과 '친구발차위 알림', '친구가탈 알림' 등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광주고객센터 상담원 민성희(여·25)씨는 "강호순 사건 이후 위치추적 서비스 가입에 대한 문의 전화도 평소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아간 근무 기피-가족 직접 এস코트=퇴근 시간이 늦은 여성들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려는 가족들도 증가하고 있다.

정모(28·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씨는 최근 들어 학원 강의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는 아내(30)가 걱정돼 거의 매일 학원 앞까지 마중 나간다. 또 오후부터는 수시로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일상이 됐다.

직장 여성들의 야간 근무에 대한 선호도도 크게 떨어졌다. 병원 등 고대 근무가 실시되는 직장에서는 최근 상당수 직원들이 주간 근무로 바뀌었다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지역 모 병원 간호사 장모(여·28·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씨는 "오전 들어 동료 간호사들 사이에선 야간 근무를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뚜렷하다"며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동료의 경우 야간 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50대 여교수 오늘 부검  
광주서부경찰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6일 광주시 서구 능성동 자택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광주 모 대학 교수 김모(여·52)씨의 사인 규명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사인을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 9일 오전 9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본소에서 부검을 실시키로 했다.

김씨는 발견 당시 목에 스카프가 감겨 있었고, 정수리 부위에선 피부가 벗겨진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같은 흔적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 타살 여부를 결론짓을 방침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김씨의 남편과 자녀 등을 광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이종형 기자 glee@

'외상값 시비' 슈퍼 여주인 살해범 중형  
광주지법 15년 선고

외상값 20만원 때문에 슈퍼마켓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강)는 외상값 시비 끝에 슈퍼마켓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5)씨에 대해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일 집 근처인 나주시 성북동 S슈퍼마켓에서 주인 A씨(여·71)가 "외상값 20만원을 갚

지 않는다"고 이웃에 소문을 낸 데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채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파트 5층 벽 오르다  
술취한 40대 추락사

술에 취한 40대가 아파트 벽을 타고 고집에 들어가려다 추락해 숨졌다.

8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경 광양시 모 아파트 5층에서 김모씨(49)가 10여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집 출입문이 잠겨 있어 복도 쪽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일 신안군 흑산면의 댐공사 현장 관계자들과 경찰 등이 댐상층부에서 쏟아져 내린 콘크리트 덩어리 속에서 인부들을 구출하고 있다.

흑산도 댐공사장 붕괴 4명 매몰

20여m 추락... 곧바로 구조 병원 이송 치료

7일 오후 3시10분경 신안군 흑산면 천촌리의 댐공사 현장에서 거주집이 붕괴돼 인부 4명이 콘크리트 덩어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치고 댐 상층부에서 내려오던 조모(54·광주시 북구 오치동)씨 등 4명이 거주집에서 쏟아져 내린 콘크리트에 매몰됐으나 인근에 있던 다른 인부들에 의해 곧바로 구조됐다.

조씨 등은 지상 29m 높이의 댐 상

층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뒤 작업로를 타고 내려오던 중 거주집이 붕괴되는 바람에 20여m를 추락한 뒤 콘크리트 덩어리에 매몰됐다.

조씨 등은 사고 직후 출동한 119구조대 헬기го 광주 전담병원과 광주 첨단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김모(63·신안군 흑산면)씨 는 "지나해 봄부터 콘크리트 타설 작

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거주집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댐 상층부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한 거주집이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쏟아져 내린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사고가 난 '흑산 제3수위지 방상수도 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229억원 규모로, 지난 2004년 9월 착공했으며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잇단 변호사 비리 '견제 시스템' 없나

수임경쟁 가열...광주·전남 2년 새 4명 처벌

최근 수임경쟁 가열 등의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변호사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견제 시스템 강화와 내부 자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광주·전남에서 징역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인신구속된 전·현직 변호사는 4명에 이른다.

이는 현재 광주·전남에 소속된 변호사(213명)의 1.9% 수준으로, 일부 변호사들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악용해 개인의 이익을 쟁

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변호사(41)는 법무블로거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개인과사 및 회생사건을 전담토록 한 뒤 의뢰인 269명으로부터 3억8천3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이 중 1억9천600만원의 배분금 형의로 1심에서 형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또 지난 5일에는 전직 변호사인 B(77)씨가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구속 피고인에게 관사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C변호사(41)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같은 변호사들의 비리는 수임을 둘러싼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오랜 불황 속에서도 변호사 수가 꾸준히 늘어난 데다 최근 '나홀로 소송'이 급증하면서 수임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수임건수가 급감하면서 비리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며 "변호사협회 내부의 규제 강화와 함께 사회적인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7723) 김중두



Advertisement for KCC (주)금복시스템,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for real estate and business.

음주운전 여성 협박 돈 뜯다 '덜미'

음주를 마시고 운전한 여성에게 '신고 하겠다'고 겁을 쥐든 뒤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 3명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7일 음주운전 사실을 발파로 40대 여성에게 현금을 받아 쟁긴 정모(24·광주시 북구 중흥동)씨 등 3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3일 새벽 2시30분경 광주시 서구 풍암동 농수산로도매시장 앞 사거리에서 산화구 바위였는데도 출발을 하지 않은 정모(여·49)씨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50만원 받아 쟁긴 혐의.

경찰은 조씨가 입금한 계좌를 추적한 끝에 정씨 등을 붙잡았는데, 이들은 경찰에서 "장난삼아 겁만 주려 했는데 (조씨) 먼저 돈을 줬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원광신협 advertisement featuring financial services, interest r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주)옥션코리아 advertisement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contact information, and branch details.